

“내 아이 학사 문의 무슨 잘못”...직원들은 난처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학생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안내하면 내 아이인데 왜 부모가 물어보는 것이 안 되냐고 하십니다....”

최근 우리학교 직원 A씨는 황당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학부모의 장학 문의가 들어왔는데 전화기 뒤편에서 해야 할 말을 전달하던 학생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A씨는 학부모 문의 전화는 특이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학사 문의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맡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기계공학과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학과 사무실 문의 시 당부사항’까지 게재했다. 학부모가 연락하는 경우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나 극심한 질병 등 성인인 학생들이 이성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보호자로서 연락하는 것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학과장의 첨언을 담아 게시했다. 학과 차원의 공지를 게재할 정도로 학부모 문의 전화는 빈번하다.

학부모 문의 전화 내용은 수강 신청, 졸업 사정, 휴·복학 및 장학 등 다양했다.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 등 학생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근무한 바 있는 직원 B씨는 “장학의 경우 학부모 직장과의 관련된 것일 때에는 직접 문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장학금도 학부모가 문의할 때가 많았다”고 회상했다. 학사



학부모 문의 전화 내용은 수강 신청, 졸업 사정, 휴·복학 및 장학 등 다양했다.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 등 학생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대부분이다. (일러스트=양여진)

를 담당하는 직원 C씨는 “학생이 수강 신청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행정실에서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냐는 문의 전화가 온다”며 “주로 1학년 학부모가 많이 문의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학부모와는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학사 관련 문의가 아닌 경우도 존재했다. B씨는 “어떤 학부모는 자녀의 친구가 해당 단과대학 소속의 경희대 학생이 맞냐고 문의한 적도 있었다”며 황당한 일화를 털어놓기도 했다.

직원들은 성인인 학생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어려웠던데도 학부모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름과 소속 학과만 알고 전화를 걸기 때문에 학생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한다. 또한 인포 21이

나 학사 규정 등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해 응대는 더욱 길어진다.

A씨는 “학부모라고 전화가 오지만 진짜 학부모인지 알 방법이 없다”며 “학생의 개인 정보도 보지 알려주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직원 D씨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 기초적인 것부터 전부 설명해드려야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E씨는 “학부모에게 학생이 직접 전화하라고 안내하는 것이 상황상 쉽지 않다”고 말한다.

정고운(사회학) 교수는 위 현상에 “현 대학생의 부모 세대는 무엇보다 주도적으로 개인과 사회 문제, 갈등 해결을 이끌어온 세대로서 자녀 세대보다 사회에 대한 전반적 식견이 높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자녀 세대는 보통

한 자녀 또는 두 자녀 중심 핵가족 속에서 자라고, 청년기 학업에 집중하며 갈등의 집단적 해결에 참여해본 경험이 적을 수 있다”며 원인을 분석했다.

김중백(사회학) 교수는 “기계공학과에서 시행하는 원칙이 교칙으로 채택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학사 상담은 학생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정보 차원에서 이를 표준화시키면 민원 경감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도 문제나 어려운 점이 생기면 성인으로서 부모에 의지하기보다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생활의 연장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 내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대안을 찾고 다른 방안도 고민하며 학교 생활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웹메일 용량 정리 7단계 실시

정혜원 기자 jhw00070@khu.ac.kr

구글의 스토리지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정보처가 구글 웹메일 용량 정리 7단계에 들어갔다. 이에 ▲공유 드라이브 메뉴 중단 ▲비정상적인 사용자 계정 차단 ▲장기 미사용 계정 차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스토리지 서비스를 학교별 100TB만 무료 제공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응해 우리학교는 ‘단계별 용량 정리 계획’을 시행해 왔다. 이번 웹메일 용량 정리도 지난 1~6단계와 동일하게 매월 1일 단계별 용량 정리 대상자 통보 후 계정을 잠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공유 드라이브 메뉴가 중단될 예정이다. 정보처는 ‘내 드라이브’ 메뉴 대체 사용을 권고했다.

또한 공유드라이브 파일 공유 서비스가 무제한인 점을 악용해 외부인들에게 불법 동영상 파일 등을 공유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일부 비정상적인 사용자 계정도 차단될 예정이다.

또한 1년 이상 로그인 이력이 없는 계정도 차단될 예정이다. 이때 외부 메일로 자동전달을 설정했을 시 로그인 이력이 남지 않아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접속이 필요하다. 차단된 계정 및 데이터는 2023년 12월에 최종 공지를 거쳐 삭제될 예정이다.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